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국채시장, 버블논쟁 대두

-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채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급락으로 인해 국채시장에 대한 버블논쟁이 불거짐.
 - 금년 4월초 4%대에 머물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8월 20일 현재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.62%까지 하락하였으며,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의 2.06%에 다가서고 있음.
 - 씨티 그룹의 토비아스 레브코비치(Tobias Levkovich)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제러미 시겔(Jeremy Siegel)교수 등은 현 상황을 2000년대 초반 IT 버블과 비교하면서 미 국채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.
 - 그들은 IT버블 시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투자가들과 현재 경제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국채 투자자들의 행태가 유사하며, 이것이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함.
 - 그러나 국채시장 버블론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제로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, 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채투자 쏠림현상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함.

-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를 대거 매도하고 채권형 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극단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,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주 등으로 투자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.
 - 세계투자회사협회(Investment Company Institute)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식형 펀드의 이탈 자금은 2,400억 달러에 달하며, 같은 기간 채권형 펀드에는 6,010억 달러가 유입됨.
 - 미 국채는 미국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함.
 - 제러미 시겔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2000년대 초반 IT 버블 시에도 해당성향이 강한 가치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보다 나은 투자성과를 나타냈다고 지적하며,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손실 위험이 큰 국채 투자 보다는 가치주 투자가 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.

(USA Today 등, 8/22)